

# 50~60대 기혼남녀의 노년기 동거가족 및 돌봄 기대에 관련된 요인 탐색

진 미 정(서울대학교 교수) · 성 미 애(방송대 부교수) · 변 주 수(서울대 박사과정)

## 1. 서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노년 인구의 등장과 그들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빈사망연령이 90세가 넘는 100세 사회의 노인들은 기존의 노인인구와 교육수준이나 경제적 수준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들이 영위할 가족생활도 기존의 노년층과는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50대, 60대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 코호트) 혹은 예비노인(1948-1954년 코호트)으로서 아직 본격적인 노년기에 접어들지 않은 연령대이지만 10-20년 안에 100세 사회의 노년층을 구성할 사람들이다. 이들이 노년기에 누구와 함께 살고 돌봄이 필요할 경우 누구에게 돌봄을 기대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노인 부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노인이 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사이의 동거와 수발, 그리고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세대 간 동거경향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동거하는 경우에도 부양 차원의 동거보다는 자녀 세대의 필요에 의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40-59세 중년층을 연구한 김두섭, 박경숙, 이세용(2000)의 연구에 따르면, 노후에 자녀와 무조건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전체의 17.9%에 불과하고 자신과 자녀의 경제적, 건강을 고려한 조건적 상황에서 동거를 기대하는 비율이 15.1%, 따로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67.0%였다. 이들 주에서 현재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통적 부양관을 가진 중년층은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현재 부모와 동거하더라도 전통적 부양관이 낮은 중년층은 자녀와의 별거를 희망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 가치관이 노년기 가족동거에 대한 기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보여 주었다.

한편 변화하는 사회규범과 가치관 속에서 노인 돌봄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100세 사회에는 세대관계에 기초한 돌봄 뿐 아니라 배우자 돌봄과 자기 돌봄이 중요한 의제가 된다. 특히 베이비부머들의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노후에 가장 중요한 관계로 부각될 전망이어서 배우자 돌봄이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실제 베이비부머들은 노후에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관계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꼽았으며(정경희, 2012), 부부 간에 노후생활(생활비, 건강유지방법이나 여가활동 등)에 대해 의논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고, 부부간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노후준비 수준

이 높게 나타났다(김미혜, 문정화, 신은경, 2012).

또한 노인들 가운데 이제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기 보다는 개인이나 사회(제도)에 있다고 보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 스스로 생각하는 노후의 경제적 부양책임에 대한 김정석(2005)의 연구에 따르면, 1994년 노인실태조사 응답자는 노후 생활비 책임이 가족이나 자녀에게 있다고 한 비율이 29.5%인 것에 비해 2004년 노인실태조사 응답자들은 그 비율이 13.4%로 낮아졌다. 반면 노후 생활이 국가와 사회 책임이라는 비율은 22.1%에서 43.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응답자들의 자원 수준에 따라 달랐는데, 가용한 자원(교육수준, 소득, 유배우자 등)이 많을수록 가족보다는 개인 혹은 사회의 책임이라고 한 확률이 높아졌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 자원의 효과는 2004년 자료에서 더 작아져 최근으로 올수록 노인의 배경 특성에 따른 차이는 점점 더 완화되고 노인 부양에 대한 노인들 스스로의 기대가 비슷하게 수렴해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석재은(2009)의 연구에서는 가족자원(자녀수)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노후 부양책임을 가족책임으로 여기는 반면, 경제적 자원과 건강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개인책임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부양 책임감이 강할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책임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노년기 부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양 가치관, 자원, 그리고 가족관계이다. 본 연구는 노인 부양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가치관, 자원, 가족관계가 50-60대 기혼남녀의 노년기 동거와 돌봄 기대에도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고자 이루어졌다. 노년기에 누구와 살 것으로 기대하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 누가 돌봐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지를 알아봄으로써 10-20년 후 노년층의 가족 및 주거생활을 전망할 수 있다. 현재 50대, 60대인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향후 10년 및 20년 후 동거 가족과 돌봄에 대한 기대를 알아보고, 이러한 기대에 가치관(부모부양, 자녀부양), 자원(건강상태, 소득수준, 자녀수), 가족관계(부부관계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현재 50, 60대 기혼남녀는 향후 10년, 20년 후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가?
- <연구문제 2> 동거 가족에 대한 전망과 관련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현재 50, 60대 기혼남녀는 향후 돌봄이 필요할 때 누가 자신과 배우자를 돌볼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 <연구문제 4> 향후 돌봄에 대한 전망과 관련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50대, 60대 연령층 남녀 각 400명씩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이다<sup>1)</sup>. 이 중 서울 거주 응답자 60%, 경기도 거주 응답자 40%이며, 서울은 4개

1)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100세 사회 가족생활 재설계 및 가족돌봄 지원방안 연구(조희금 외, 수집된 자료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역(북동, 북서, 남동, 남서)으로, 경기도는 5개 지역(북부, 서남부, 남부, 서부, 동부)으로 구분하여 표집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내용은 100세 사회의 가족생활과 관계, 현재 세대관계 및 돌봄, 가족가치관, 거주 및 지역사회 참여, 정신건강 및 만족도, 10년 후 및 20년 후 전망 등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은 응답자 및 가구구성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과 더불어 “10년/20년 후 각각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향후 본인/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져서 돌봄이 필요하다면 누가 돌봐줄 것인지”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이다.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연령, 성별, 본인 건강상태, 배우자 건강상태, 미혼자녀수, 기혼자녀수, 가구소득, 부모부양가치관, 자녀부양가치관, 부부관계만족도이다. 성별의 경우 더미변수(여성=1)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전혀 건강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건강하다(5점)’ 5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가구소득은 100만원단위로 8단계(100만원 미만=1, 700만원 이상=8)로 구분하였다. 가치관 관련 문항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부양 가치관은 ‘자녀는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와 ‘자녀는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두 문항의 평균이며, 자녀부양 가치관은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부모는 필요하다면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경제적 도움, 손자녀 돌보기 등)’의 세 문항의 평균이다. 부부관계만족도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0점(부정적)에서 10점(긍정적)까지 응답하게 하였다. 종속변수 중 10년/20년 후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혼자,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 기혼 아들, 기혼 딸, 며느리, 사위, 미혼 딸, 미혼 아들, 친손자녀, 외손자녀, 친인척, 기타 지인’ 중 중복해서 선택하게 하였고, 이 중에서 ‘혼자’를 선택한 집단과 ‘배우자’만 선택한 집단, ‘자녀(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를 선택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본인/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져서 돌봄이 필요하게 된 경우 누가 돌볼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배우자(본인), 장남/큰며느리, 여건이 되는 아들/며느리, 딸/사위, 여건이 되는 자녀, 전문 돌보미, 요양병원 등 전문기관,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는데, 이를 크게 ‘배우자(본인)’, ‘자녀’, ‘전문기관 이용’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통계 분석으로는 우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치를 제시하였고, 향후 동거가족 및 돌봄자에 대한 분석은 다항로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9.3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1)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

설문조사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에 제시한 <표 1>과 같다. 남녀의 비율은 50%로 같고, 연령대 역시 50대와 60대가 50%로 동일하다. 현재 취업 중인 사람은 68%이며, 가구소득의 분포는 300만 원 미만이 28.4%,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34.1%, 500만 원

이상이 37.5%였다.

<표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800	100.0				
성별	남성	400	50.0				
	여성	400	50.0				
지역	서울	480	60.0				
	경기	320	40.0				
연령	50대	402	50.3				
	60대	398	49.8				
취업 상태	취업	544	68.0				
	비취업	256	32.0				
월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7	4.6				
	100-200만원 미만	70	8.8				
	200-300만원 미만	120	15.0				
	300-400만원 미만	135	16.9				
	400-500만원 미만	138	17.3				
	500-600만원 미만	138	17.3				
	600-700만원 미만	77	9.6				
	700만원 이상	85	10.6				
자녀수	미혼자녀	800		1.24	0.92	0	5
	기혼자녀	800		0.84	1.07	0	5
건강 상태	본인	800		3.71	0.73	1	5
	배우자	800		2.25	0.70	1	5
가치관	부모부양가치관	800		3.19	0.83	1	5
	자녀부양가치관	800		3.39	0.62	1	5
만족도	부부관계만족도	800		6.73	1.67	0	10

## 2) 10년/20년 후 동거 가족 전망

앞으로 10년 후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 것 같은지를 예상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배우자(83.00%)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는 자녀2)(10.69%), 혼자(5.79%), 노부모 또는 친인

2) 결혼한 딸·아들, 며느리, 사위, 미혼 딸·아들, 친손자녀 포함

척(0.63%)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후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 것 같은지를 예상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배우자(75.72%)라고 하였지만, 혼자(17.61%)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고, 자녀(4.5%)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졌다.

<표 2> 10년 후 및 20년 후 동거할 가족 예상

구분	10년 후	20년 후
응답자의 수	800 (100)	800 (100)
노부모, 친인척	5 ( 0.63)	22 ( 2.75)
혼자	46 ( 5.75)	137 (17.13)
배우자	664 (83.00)	606 (75.72)
자녀	85 (10.63)	35 ( 4.38)

앞으로 10년/20년 후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 것 같은지를 예상하는 응답 유형을 크게 혼자, 배우자, 자녀로 구분하여 각각의 응답을 선택할 확률을 다항로짓으로 분석해보았다. 앞으로 10년 후 혼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과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간에는 부부관계 만족도 외에는 차이를 보여주는 변수가 없었다. 현재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10년 후 배우자와 둘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할 확률이 더 높았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자녀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혼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자녀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이라고 할 확률이 높았다. 성별이나, 본인의 건강상태, 배우자의 건강상태, 가족 관련 가치관 등은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표 3> 참조).

20년 후에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인지를 예상하는 응답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부양 가치관의 점수가 낮을수록, 부부관계 만족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혼자 살 것이라고 응답한 확률 보다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확률이 높았다. 또한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기혼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와 함께 살 것이라고 응답한 확률이 혼자 살 것이라고 할 확률에 비해 더 높았다(<표 3> 참조).

<표 3> 향후 동거할 가족 예상 다항로지 결과

구 분	10년 후				20년 후			
	배우자		자녀		배우자		자녀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연령	-.06	(.04)	-.14	(.05)**	-.10	(.03)***	-.04	(.05)
여성	-.64	(.34)	-.35	(.41)	-.83	(.22)***	-.59	(.41)
건강상태	-.08	(.22)	.24	(.29)	.24	(.14)	.82	(.34)*
배우자 건강상태	-.26	(.21)	-.16	(.29)	-.24	(.14)	-.53	(.35)
미혼자녀수	.50	(.32)	.71	(.37)	.07	(.19)	.51	(.34)
기혼자녀수	.30	(.24)	.76	(.32)*	.28	(.16)	.97	(.31)**
가구소득	.16	(.11)	.43	(.13)***	.14	(.06)*	.43	(.13)***
부모부양가치관	.17	(.22)	-.13	(.26)	.15	(.14)	.31	(.28)
자녀부양가치관	-.03	(.29)	.67	(.37)	-.61	(.19)**	.48	(.40)
부부관계만족도	.34	(.09)***	.50	(.12)***	.29	(.06)***	.11	(.14)
상수	3.69	(2.81)	.04	(3.53)	6.09	(1.82)**	-7.58	(3.88)
LR chi2(18)	104.85***				129.63***			
N	795				778			

주: 10년 후와 20년 후 모두 '혼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준거집단임.  
\*p <.05; \*\*p <.01; \*\*\*p <.001

### 3) 본인 및 배우자 돌봄 전망

향후 본인에게 돌봄이 필요하게 될 때 누가 돌봐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배우자가 돌볼 것이라고 하는 응답 비율이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요양병원 등 전문 기관을 이용할 것이라고 한 경우가 28.9%로 높게 나타났다. 장남이나 아들, 여건이 되는 자녀 등 자녀에게 기대한다고 한 경우는 11.2%였다. 배우자의 건강 때문에 돌봄이 필요할 때 누가 돌봐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 본인이 돌본다는 비율이 76.6%로 가장 높았고, 요양병원 등 전문 기관을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를 고용한다는 비율이 20.9%, 자녀가 돌볼 것이라고 한 비율은 2.45%였다.

흥미롭게도 본인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배우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배우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이 돌보겠다고 한 비율이, 나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배우자가 돌볼 것이라고 한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본인에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자녀가 돌볼 것이라는 기대나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 본인과 배우자 돌봄이 필요할 경우 돌봐줄 사람 예상

구 분	본인	배우자
배우자/본인	469 (59.82)	593 (76.61)
자녀	88 (11.22)	19 ( 2.45)
전문 도우미나 기관	227 (28.95)	162 (20.93)
N	800 (100.0)	800 (100.0)

응답 유형을 크게 배우자, 자녀, 전문 서비스로 구분하여 각각의 응답을 선택할 확률을 다항 로짓으로 분석해보았다. 향후 돌봄이 필요할 경우 배우자가 돌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준거집단으로 할 때, 기혼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부양 가치관 점수가 낮을수록, 부부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자녀가 돌볼 것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더 높았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부모부양 가치관 점수가 낮을수록, 부부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배우자가 돌볼 것이라고 한 사람들에 비해 전문요양사나 전문기관을 이용할 것이라고 할 확률이 높았다. 즉,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한 가치관에 동의할수록 향후 자녀가 자신을 돌볼 것이라고 할 확률이 낮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가치관에 동의할수록 전문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할 확률이 더 낮았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배우자가 돌볼 것이라고 할 확률이 높았다. 본인의 건강상태, 배우자의 건강상태, 가구소득 등은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표 5> 참조).

배우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돌봄이 필요하게 될 경우와 다소 다른 요인들이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녀가 돌볼 것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더 낮았다. 또한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기혼자녀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모부양 가치관 점수가 더 높을수록 본인이 돌볼 것이라고 할 확률이 전문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할 확률에 비해 더 높았다(<표 5> 참조). 흥미로운 차이점은 부부관계 만족도인데, 본인에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누가 돌볼 것인가에는 영향을 미치는 반면 배우자에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누가 돌볼 것인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향후 본인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자 예상 다항로짓 결과

구분	본인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배우자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자녀가 돌봄		전문기관 이용		자녀가 돌봄		전문기관 이용	
	b	s.e.	b	s.e.	b	s.e.	b	s.e.
연령	.03	(.03)	-.01	(.02)	.06	(.03)	-.00	(.02)
여성	.44	(.25)	.83	(.17)***	-1.10	(.36)*	-.18	(.19)
건강상태	.15	(.18)	-.01	(.13)	-.24	(.25)	-.42	(.13)**
배우자 건강상태	-.06	(.19)	.15	(.13)	-.07	(.27)	-.06	(.14)
미혼자녀수	.21	(.21)	-.27	(.16)	.59	(.22)	.00	(.16)
기혼자녀수	.42	(.17)*	-.06	(.14)	-.03	(.22)	.29	(.14)*
가구소득	-.02	(.07)	-.004	(.05)	-.10	(.09)	.07	(.06)
부모부양가치관	.33	(.18)	-.33	(.12)**	-.05	(.23)	-.29	(.12)*
자녀부양가치관	-.65	(.23)**	.11	(.16)	.13	(.31)	.01	(.16)
부부관계만족도	-.22	(.08)**	-.14	(.06)*	-.09	(.10)	-.05	(.06)
상수	-2.47	(2.18)	1.43	(1.53)	-5.81	(2.59)	1.11	(1.62)
LR chi2(14)	93.72***				38.65			
N	784				774			

주: 본인의 경우는 ‘향후 나에게 돌봄이 필요하게 될 때 배우자가 돌본다’고 한 집단, 배우자의 경우는 ‘향후 배우자에게 돌봄이 필요하게 될 때 내가 돌본다’고 한 집단이 준거집단임

\*p <.05; \*\*p <.01; \*\*\*p <.001

#### 4. 논의 및 결론

노년기 생활이나 돌봄 양상을 전망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부양(생계비 책임)의 개인, 가족, 국가의 책임소재를 연구하거나(김정석, 2005; 석재은, 유은주, 2007; 박경숙, 2002),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부양 실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정경희 외, 2012; 한경혜, 이정화, 2012). 이러한 연구들은 노후 부양의 가족책임 규범이 약화되고 개인이나 국가책임의 규범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대 간 교환이나 부양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 노년기 가족 부양에 대한 상반적 메시지를 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세대 간 부양이나 수발의 차원이 아니라 가족생활이라는 차원에서 현재 50, 60대 중년층이 노후를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들이 노년기에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에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누가 돌볼 것이라고 예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질문은 응답자의 선호보다는 현실적 기대를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이다. 응답자들의 응답에는 누구와 살고 싶은지의 선호보다는 현실적으로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한 주관적 예상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예상의 준거점을 제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미래인 10년 후와 더 먼 미래인 20년 후라는 시점에 대해 두 번 질문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돌봄에 대해 각각 질문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50-60대가 노년층이 될 때 부부가족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서로 돌볼 확률이 가장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베이비부머에 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듯 배우자와의 관계가 노년기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연구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치관, 자원, 가족관계에 따라 노년기 동거가족과 돌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부양 가치관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전문 서비스/기관을 이용할 것이라고 한 확률이 더 낮았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자녀부양 가치관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에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자녀가 돌볼 것이라고 기대한 확률이 더 낮았다.

자녀와 함께 살 것이라는 전망에는 기혼자녀수, 가구소득, 건강이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자녀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이 많은 응답자들이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 것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자녀로부터 부양이나 수발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녀세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는 같이 살더라도 자기 돌봄이 가능해서 자녀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자녀와의 동거를 선호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부부관계 만족도는 노년기 동거와 돌봄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향후 혼자 살 것이라는 기대에 비해 배우자와 둘이 살 것이라는 기대와 자녀와 함께 살 것이라는 기대가 둘 다 높았다. 부부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배우자와 둘이 사는 것은 물론 가족이 다함께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응답자들이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부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본인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자녀나 전문기관이 아닌 배우자가 돌볼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가 높았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돌봄 제공자에 대해서 부부관계 만족도는 유의한 요인이 아니었다. 즉, 부부관계 만족도가 낮은 응답자들은 자신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배우자로부터의 돌봄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배우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은 돌봄 제공자가 되겠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으면서도 스스로는 배우자의 의무감이나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본다면 적어도 지금 50-60대는 부부관계에 만족하는지에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자신이 돌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누구와 살 것인지, 10년 후 또는 20년 후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은 20년 후 요양기관 등에서 살 것이라고 한 확률이 남성보다 높았고, 배우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돌볼 것이라고 할 확률이 남성보다 낮았다. 즉,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자녀에게 동거와 돌봄을 기대하는 수준이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수명의 성차가 다르다는 사실과 더불어 노년기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성별에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12)에 따르면,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혼자 사는 노인독거가구는 19.6%, 부부만 사는 노인부부가구는 48.5%,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는 27.3%, 기타가 4.6%이다<sup>3)</sup>. 현재 50대, 60대가 본격적인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러한 비율은 부부가구의 비율은 더 높아지고 자녀와 사는 비율은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전망은 노년기에 대한 연구가 세대 간 부양이라는 주제를 넘어서서 노년기 부부생활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결과, 현재 50-60대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들은 노년기에 배우자와 둘이 살면서 서로를 돌보는 생활을 하게 될 전망이 가장 높다. 이들이 새로운 노년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돌봄과 배우자 돌봄을 가능하게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이 개발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향후 가족정책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노년기 가족생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100세 사회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한 연구 자료를 이차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50-60대로 베이비부머, 예비노인 및 연소노인층이 혼재되어 있다. 즉, 이들은 학술적으로는 서로 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으나 연구 자료의 샘플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표집되었기 때문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50-60대를 포함시키지 못하였고, 현재 배우자가 있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유배우 상태가 아닌 50-60대를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100세 사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망하기 위해서는 보다 대규모 조사로 베이비부머 및 예비노인들의 가족생활을 파악하는 것이 시의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두섭 · 박경숙 · 이세용(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한국인구학 23(1), 55-89.
- 김미혜 · 문정화 · 신은경(2012). 베이비부머의 부부관계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예비노인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3), 211-239.
- 김정석(2005). 한국노부모들의 노후부양관 변화, 1994-2004년. 한국노년학 25(4), 1-11.
- 석재은(2009).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와 영향 요인. 보건사회연구 29(1), 163-191.
- 석재은 · 유은주(2007). 노인의 경제적 부양과 신체적 부양: 가족의무와 국가책임의 균형. 가족법연구 21(1), 31-56.
- 박경숙(2002). 한국과 일본에서 장애인 가족부양자의 사회적 보호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욕구: 가족부양과 사회서비스는 대체적 관계인가 보완적 관계인가? 한국노년학 22(1), 241-260.

3) 이 조사는 일반가구 조사이므로 요양병원 등 노인전문시설에 있는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엄명용(2001). 가족(성인자녀)에 의한 노인부양의 종류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전(원) 가족 관계 양상 분석 및 개입전략의 제시. 한국사회복지학 47, 206-242.
- 조희금·김선미·노영주·성미애·이승미·이현아·진미정(2012). 100세 사회 가족생활 재설계 및 가족돌봄 지원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2-26.
- 조추용(2004). 노인이 가족에게 기대하는 부양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71-99.
- 정경희 외(2012). 2011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2012). 베이비부머의 가족생활과 노후생활전망. 보건복지포럼, 187, 40-49.
- 한경혜·이서연(2009). 배우자 부양자의 부양 동기, 사회적 지지와 부양 부담: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2), 683-699.
- 한경혜·이정화(2012). 지금, 중년을 말할 때. (주)교문사.



## 50~60대 기혼남녀의 노년기 동거가족 및 돌봄 기대에 관련된 요인 탐색

차 승 은(수원대학교 조교수)

노인 1인가구의 증가 추세가 가속화 되면서, 노년기 가구형태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과거 이혼향도의 주역이었던 세대가 이제 노인이 되는 과정 중(혹은 이미 노인이 되었기)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부모세대는 지난 60-70년대에 자녀의 계층상승을 위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달리 비자발적인 형태로 노인 단독가구를 이룬 현재 고령노인세대이다. 최근의 노인 자살 특히, 고령노인(80대 이상)의 자살은 그들의 예측과 희망이 현실과는 괴리를 이루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예비노인들은 과연 그들의 부모세대와는 차별적인 행보가 가능할까? 말하자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거주형태를 결정하고, 독립적이고 “멋진” 노년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을지, 혹은 그들도 결국에는 자녀부양의 희망을 품었다가, 그것이 “희망사항” 으로만 전락하는 비극을 되풀이 할지, 그 여부에 대한 궁금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얼마만큼 거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노인 스스로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세대연구들이 보고자 했던 노인의 거주에 대한 예측을 “누구와 함께 살게 될 것 같은가?”라는 직접화법으로 묻고 있다. 이는 노인이 앞으로 노년기 삶을 꾸려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예비노인층의 인식변화를 따라가면서, 지금 세대관계 및 시대변화에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무엇이며, 따라서 어떠한 비극(혹은 희망)이 예고되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그 부분에서는 연구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더욱이 이 연구는 군더더기 없이 매우 깔끔하게 문제제기와 연구문제설정이 이루어졌고, 특히 기존 연구에서 놓치고 있는 가족관계 부분에 집중하고자 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다만, 이 글을 읽으면서, 예상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으나 무엇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무엇일까?

-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누구와 함께 살 것 같은가를 물으면서 10년, 20년이라는 구체적인 연령을 제시하였다. 물론, “기대”는 선호와는 다르고, 따라서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과연 그 기대는 단일 차원일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가

그야말로 “현재의 연장선상에서의 예측”일 수 있으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사항”을 의미하는, 다시말해서 같은 개념이라도 차별적으로 해석될 소지는 없었을까? 또한 “누구와 함께 살 것 같은가”의 질문에 대해, 결국이 “함께”의 부분을 거부한 응답인 “혼자”라고 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혹시라도 “모르겠음”, “무응답”, 혹은 “응답거부”와 “응답회피”가 모두 이 “혼자”라는 응답범주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를 해본다.

- 앞으로의 거주형태는 현재의 어떠한 거주형태에서 나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현재 이 연구에서는 거주형태에 대한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고, 모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50대 중에서는 아직 빈둥우리기로 진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혼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50대에게 앞으로의 동거가족을 묻는 질문은 인식을 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명확하게 중고령층의 거주형태에 대한 현실적인 예측상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분석대상자의 범위를 좁혀 보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대상자를 자녀출가를 모두 마친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현재 거주형태를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동거에 대한 이들의 기대를 해석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거주형태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사실상 이 연구에서 10년, 20년의 시점을 달리한 질문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토론자는 판단하였다.

현재 노인들의 거주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빈둥우리가 진행되면서 부부가구가 노인 부부가구, 그리고 사별 후 노인 1인 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자녀동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적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상호 연결된 삶(linked lives)로서의 세대관계의 속성상, 노년기 거주형태는 노인 본인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자원의 감소, 자녀세대의 경제적 상황, 갑작스러운 건강문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노인의 거주는 매우 조건적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주장처럼 가족관계적 속성에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거주형태변화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부부가족이 자녀와 동거를 하게 될 때에는 자녀의 요구(경제적인 이유(둘 세대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졌을 때), 혹은 손자녀 돌봄을 위해)에 의해서거나 혹은 노인 스스로의 건강악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지적한다. 따라서 거주 방향성을 고려한다면 배우자와의 동거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진행해 나가는 과정과 요인, 그리고 그 속에서 예비노인들의 “의도나 전략” 그리고 “자발성”을 살피는 것이 개연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현재 이 연구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예상을 살펴본 다항로짓의 준거집단은 혼자 살 가능성이 아니라, 그 진행방향 상 배우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준거가 되는 것은 연구자께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궁금하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가운

데, 그래도 자녀와 혹은 혼자 살아갈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아마도 해석의 결과가 약간 다르게 펼쳐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물론, 준거집단 결정은,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또한 이론적 근거에 따라 준거를 어떻게 잡는가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현재 준거를 잡게 된 이유가 어떠한지 궁금하다.

- 돌봄과 관련해서 현재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진행방향은 그들에게 돌봄의 욕구가 존재할 때, 결국 다시 자녀에게로 돌아가는 양상이다. 정책이 존재하고, 전문기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가요양이 원칙인 현재의 요양제도 내에서는 건강악화 및 기능제한이 발생하는 중국에는 자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비노인들은 본인들이 자녀 그 당사자는 점에서 제도의 모순, 자녀세대의 어려움, 그리고 부모로서의 존엄성을 위해 가족이 필요한 부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분명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거주하며, self-care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예측하는 집단, 혹은 전문가에게 돌봄을 맡기는 것을 예측하는 집단의 속성을 밝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왜, 어떤 이유로 그들은 기존의 노인들이 취해왔던 방식과 다르게 기대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돌봄기대에서 역시 준거집단은 자녀돌봄이라고 언급한 집단을 중심으로 누가 노인 스스로 돌봄(본인이든, 배우자든), 혹은 전문기관이나 요양사 돌봄을 살펴보면 어떨까 한다.

- 이 연구의 제목에서부터 “요인 탐색”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적하는 요인 중에서 사회적 연결망 및 지원 특성이 빠져 있는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 노년기에 가장 자주 만나고 접촉하는 대상은 가족 중에서는 배우자이고 그 다음은 친구나 친척, 이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self-care나 전문요양기관 같은 집단생활을 선호한다는 것은 이미 예비노인 시기부터 긴밀하고, 행복한 사회적 관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일반적인 부양관련 가치관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거주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족관계적 특성과 거주유형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회관계망 요소나 적어도 친구관계 부분에서의 통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요인 탐색 가운데서, 소득 부분이 조금은 가볍게 다루어 진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50대 이후 가구소득은 근로소득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회보장 소득을 비롯하여 각종 연금, 부동산, 재산소득과 같은 자산과 부채까지도 포함을 해야 실질 순 소득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노년기 거주형태는 결국은 자산상황과 밀접하게 연동을 하기 때문에, 노년기 거주형태에서 자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구간소득변수를 활용하였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소득관련 특성이 없는지, 변수가 있다면 그것들이 보완적으로 모형에 포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혹은 자녀와의 사회적 지원여부 역시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을 이루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야 수치들을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조금은 지엽적인 부분인데, 다항로짓을 사용하고 있다면, 계수값보다는 승산값(Odds. Ratio)을 제시하는 것이 해석하기 더 쉬울 것 같다. 또한 개인적인 경험상 다항로짓은 기본적으로 종속변수가 카테고리 변수이기 때문에 독립변수 역시 연속변수보다는 집단변수로 구성하는 것이 예측력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다항로짓분석에 대한 토론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다.